

## SK서린빌딩 협력사 직원이 감동한 까닭은 “코로나에 최선” 회장님의 깜짝선물

최태원, 사회안전망 구축의지

서린빌딩 관리 직원 300여 명에  
마스크·홍삼 등 선물과 감사카드

최태원 SK회장이 서울 서린빌딩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포스트코로나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K그룹 인프라넷에는 최회장이 서린빌딩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위생관리와 보안, 출입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300여명에 마스크와 홍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과 감사카드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카드에는 “직접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이파이브할 날을 기다리겠다”는 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SK

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조회 수 3000건을 넘어서는 등 구성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댓글에는 ‘회사가 자랑스럽다’거나, ‘따뜻한 진심과 배려에 감동했다. 코로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등 응원이 이어졌다.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한 직원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조리사분들도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다. 항상 죄송했는데 회장님이 대신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미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수펙스 추구협의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사회와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철학 일환으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회장은 해외 현지 주재원과 가족, 스포츠팀과 연구개발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지난 5월 28일에는 직접 SK그룹 현행 릴레이에 참여하면서 사회 안전망 관련 활동을 이끌어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 '더 뉴 싼타페' 주행 모습.

## 강렬하게 돌아온 패밀리카 성능 더하고, 연비 높이고



### 현대차 '더 뉴 싼타페'

현대자동차가 2년 만에 부분변경을 통해 내놓은 '더 뉴 싼타페'는 '국민 패밀리 SUV'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한층 강화된 주행성능과 넓은 공간성을 확보한 '더 뉴 싼타페'는 가족을 위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실제 더 뉴 싼타페의 광고는 가수 이승환의 노래 가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만난 더 뉴 싼타페의 첫 인상은 '독수리의 눈'을 콘셉트로 헤드램프 일체형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을 독창적으로 대비시켜 강렬한 인상을 준다. 리어램프도 얇고 길어져 후면부는 안정감을 준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감성에 직관성을 더한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적용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센터콘솔은 넥쏘처럼 높고 비스듬하게 배치해 운전하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서 조작할 수 있다.

스마트스트림 D2.2엔진을 새롭게 적용한 더 뉴 싼타페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한 카페까지 왕복 70km 구간을 주행했다. 시승 모델

은 싼타페 최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피' 7인승 모델이다.

시동을 켜도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주행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첫 시승만으로 정속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차량 정지 후 공회전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으면 확실히 디젤엔진 특유의 소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흡차음재와 이중접합유리 등을 충분히 적용해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은 최대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주행시 변속 또는 급가속 할 때 응답성은 뛰어났다.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성능을 낸다. 주위를 할 때도 순간 힘있게 치고 나갔다.

더 뉴 싼타페에는 운전자 보조기능과 편의사양이 대거 추가됐다. 차로 유지 보조(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시스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등을 적용했다. 연비도 우수했다. 연비는 급가속과 급제동이 이어지는 등 거칠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5.3km/L를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3열 활용성이다. 쏘렌토는 2열에 독립시트를 적용해 3열까지 이동성을 높였다. 반면 싼타페 7인승 모델은 3열을 이용하기에 탑승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 국내 최초 상용차 케어 서비스

대형트럭 '엑시언트 프로' 차주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 도입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고객 안전을 위해 업계 최초로 대형트럭 '엑시언트 프로' 차주를 대상으로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를 통해 수집되는 DTC(고장코드) 정보를 활용해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연락 및 정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내 상용차 최초 능동형 케어 서비스다.

이번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이 첫 적용될 '엑시언트 프로' 고객에게는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서 차량 고장 발생 현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뒤, 우선 연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필요할 경우 사전 출동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으로 촉발되는 고객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정비 예

약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상용차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운행시간(UPTIME)을 증대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엑시언트 프로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은 국내 상용차 최초 안전 알림 서비스”라며 “운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용차 고객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디스플레이, 눈 편한 OLED TV 패널 인증

글로벌 인증기관 '플리커 프리' 획득  
눈 건강 장점, OLED 대체화 가속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깜빡이지 않는 성능으로 눈에 편한 디스플레이임을 인증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패널 최초로 독일 국제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와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로부터 '플리커 프리' 인증과 검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플리커 현상은 조명이나 화면이 매우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뜻한다. 느낄 수 있는 가시 플리커와 느껴지지 않는 비가시 플리커가 있는데, 둘다 장시간 노출되면 눈에 피로나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 슬로모션 동영상이나 휴대용 선풍기 날개사이로 TV를 보면 직접 느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은 TUV 라인란드로부터 비가시 플리커도 0%로 측정됐다. UL에서도 플리커 현

OLED 눈에 편한 디스플레이 인증 (블루라이트 저감, 플리커 프리) 획득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 오창호 부사장(왼쪽)과 티뷰비 라인란드 카스텐 리네만 한국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상이 1.3%로, 기준치인 9.6%를 크게 밑도는 점수로 검증마크를 획득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 특성상 플리커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CD TV는 백라이트 LED 광원이 짧은 주기로 깜빡이며 빛을 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

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낮춰 TUV 라인란드에서 '낮은 블루라이트' 인증을, UL에서 '블루라이트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마케팅에서 '플리커 프리'와 '낮은 블루라이트' 인증을 통해 대형 OLED 대체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 휴대폰 보험금, 서류 없이 간편청구 가능

LG유플러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실·파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LG유플러스는 U+휴대폰 보험 앱에서 블록체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서 비스인 이니셜 앱과 연동해 휴대폰 분실·파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파손의 경우에는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수리영수증과 견적서를 발급받은 뒤 파손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제출해야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부터 LG전자 휴대폰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U+휴대폰 보험 앱에서 블록체 기반 분산원장 기술로 제조사의 수리비 정보를 연동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수리영수증과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해졌다. LG전자 휴대폰 이용자 파손 보험 청구 건 가운데 80%는 서류 제출 없이 보상 처리돼왔다.

이번에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이용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U+휴대폰 보험 앱에서 '서류 자동 연동' 버튼을 누르면 전자증명서 서비스인 이니셜 앱이 연동돼 삼성전자 수리비 정보를 연동하는 식이다. 오후 4시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당일에 보험금이 입금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